인뱅, 수익 다변화… 해외시장·자산관리·외부 플랫폼 승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

금융당국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
대출 줄여 비이자이익 확대 속도
카카오, 누적 비이자수익 8883억



AI 생성 이미지.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비이자이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전통적인 예대마진 중심의 성장에 한계가 나타나자 해외 진출과 자산관리(WM), 플랫폼 제휴 등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기존 여수신 사업을 넘어 새로운 수익 기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올해 3분기 누적 비이자수익은 8883억원으로 전년 동기(8351억원) 대비 6.4% 증가했다. 전체 영업수익에서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달한다. 3분기에만 2988억원의 비이자수익을 거뒀다.

◆ 해외진출·WM·플랫폼 강화

카카오뱅크는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난 17일 몽골 디지털은행 M뱅크의 지분 15%를 확보하며 2대 주주에 올랐다. 지난 4월 M뱅크의 모기업인 MCS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카카오뱅크는 M뱅크와 현지 시장에 최적화된 금융상품과 신용평가모형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앞서 진출한 인도네시아와 태국에 이어 몽골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며 아시아 디지털 금융벨트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자산관리 서비스 대중화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12일 선보인 펀드 서비스는 출시 열흘 만에 가입 계좌 5만좌를 돌파했다. 국내외 주식과 채권, 혼합형, 금, 머니마켓펀드(MMF) 등 총 17종의 상품을 갖췄다.

특히 기존 금융상품의 복잡한 명칭 대신 투자 대상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름을 제공하는 등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주력했다. 일상적인 은행 거래 고객을 투자 고객으로 전환해 수수료 수익 기반을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케이뱅크는 외부 플랫폼과의 제휴를 강화하고 있다. 무신사와 네이버페이, 동행복권, 컬리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입된 고객을 가상계좌 거래와 제휴 금융상품, 앱 내 광고 수익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의 실명계좌 제휴를 연장한 데 이어 스테이블코인 기반 송금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는 등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 기회도 모색하고 있다.

◆ 수익구조 다변화 불가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비이자 부문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대출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가계대출은 금융당국의 총량관리로 취급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운 데다 대안으로 꼽히는 기업대출 역시 건전성 부담이 적지 않다.

실제 지난 10월 말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평균 연체율은 0.48%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69%로 대기업 대출 연체율(0.23%)의 3배에 달했다.

정부가 집단대출을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일부 영업 여력이 확보됐지만, 기존 시중은행에 비해 집단대출 영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서는 수혜가 제한적일 수 있다.

결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장기 성장성을 좌우하는 변수는 확보한 고객 기반을 얼마나 다양한 수익원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고객 수와 대출자산 확대를 중심으로 전개됐던 인터넷전문은행 간 경쟁이 수익구조 다변화 경쟁으로 옮겨가는 셈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뱅 입장에서는 결국 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가 변하지 않는 한 이자수익을 늘리기란 쉽지 않다"며 "비이자수익을 늘리는 방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0.01% '보합 문턱'

94주 연속 올랐지만 자치구 9곳 하락
광진구·영등포구 하락, 양천구 보합
성북·노원·서대문 중소형 위주 상승

서울 아파트값이 94주째 올랐지만 상승폭은 0.01%까지 줄었다. 가격이 내린 자치구는 9곳으로 늘었다. 강남3구에서 시작된 하락세가 한강변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3일 기준 전주보다 0.01% 올랐다. 지난주(0.03%)보다 상승폭이 축소돼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하락세를 나타낸 곳은 9곳이었다. 광진구(-0.01%)와 영등포구(-0.01%)는 지난주 상승에서 이번 주 하락으로 돌아섰다. 양천구는 0.01%에서 0.00%로 보합을 기록했다.

하락세는 강남권이 이끌었다. 송파구가 잠실·문정동 주요 단지 위주로 0.50% 떨어졌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0.34%, 0.30% 하락했다.

강북에서는 용산구(-0.03%)와 성동구(-0.01%)가 약세를 보였다.

반면 중저가 단지가 많은 외곽 지역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성북구(0.33%)는 정릉·돈암동 대단지, 노원구(0.27%)는 상계·중계동 역세권, 서대문구(0.25%)는 홍제·홍은동 중소형 위주로 상승했다.

부동산원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와 역세권 위주로 상승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 계약이 체결되는 등 지역별로 상승과 하락이 섞여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0.05% 올라 지난주(0.06%)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은 0.10%, 지방은 보합(0.00%)이었다. 경기는 0.21%에서 0.17%로 상승폭이 줄었지만, 군포시(0.52%)와 용인 기흥구(0.52%), 화성 동탄구(0.50%)는 0.5% 이상 올랐다.

전세시장은 오름세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9%, 서울은 지난주와 같은 0.14% 올랐다. 노원구(0.40%)와 금천구(0.29%), 성북구(0.27%)가 크게 올랐고, 서초구(-0.02%)는 반포·잠원동 구축 위주로 내렸다. /안상미 기자 smahn1@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26일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착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시삽을 하고 있다. /서울시

서울 최대규모 한남3구역 재개발 첫 삽

뉴타운 지정 23년 만에 착공식
5970가구 규모… 2030년 준공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조합원과 주민 등 100여 명이 모인 착공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참석자들이 삽을 들었다. 2003년 한남 일대가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23년 만에 한남뉴타운에서 처음으로 공사가 시작됐다.

서울에서 규모가 가장 큰 재개발 사업장인 한남3구역은 이날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에 들어갔다. 한남3구역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주최한 착공식에는 오 시장과 권영세 국회의원, 김경대 용산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준공 목표는 2030년 12월이다.

한남동·보광동 일대 약 38만6000㎡에는 지하 7층~지상 최고 21층, 123개 동, 5970가구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1020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이다. 8개 블록에 13개 주택용지를 배치하고 초등학교와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도 함께 조성한다. 부지 안에서 높낮이 차가 최대 58m에 이르는 만큼 지형과 남산·한강 경관을 고려해 주택과 기반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한남3구역은 2009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된 뒤 2012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기존 계획 재검토와 건축심의 보류를 거쳐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까지 6년 6개월이 걸렸다. 서울시가 제시한 이 구간의 표준처리기한은 1년 7개월이다. 관리처분인가는 2023년 9월에 받았다.

시는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를 조정해 공동주택용지를 넓히고, 용도지역 상향과 준주거지역 내 주거비율 완화로 사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건축·경관·교통 등 8개 분야를 한꺼번에 다루는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약 4개월 만인 올해 9월 마쳤다. 시는 착공 이후에도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남3구역 착공으로 올해 서울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18개 구역 약 2만3000가구로 늘었다. 연간 목표인 3만 가구의 75.8%다. 시는 건축물 해체를 마쳤거나 마무리 중인 7개 구역의 후속 절차를 관리해 12월 중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내년과 2028년 착공 예정인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한다.

오 시장은 "처음 이곳의 미래를 그렸던 시장으로서 23년의 기다림 끝에 한남3구역이 첫삽을 뜨게 돼 감회가 남다르다"며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공사 기간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

SC제일은행, 종로·여의도에 'WM센터'

차별화 자산관리 서비스 선보여
고객상담공간·세미나실 등 갖춰

SC제일은행이 금융·비즈니스 중심지인 서울 종로와 여의도에 자산관리 특화 지점 'WM센터'를 개점하고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

SC제일은행은 종로구 인사동에 '종로WM센터'를, 영등포구 국제금융로에 '여의도WM센터'를 각각 개설했다고 26일 밝혔다.

SC제일은행의 'WM센터'는 모기업인 스탠다드차타드(SC)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SC제일은행의 국내 자산관리 역량을 결합해 맞춤형 자산관리와 금융 자문을 제공하는 특화 지점이다.

종로WM센터는 금융·비즈니스 중심지인 종로와 강북 지역의 금융 수요를 겨냥했다. 고객 상담 공간과 세미나실, PB 라운지 등 시설을 통해 고객이 다양한 자산관리 및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SC제일은행 '종로구WM센터' 내부 전경. /SC제일은행

여의도WM센터는 자산관리와 기업금융 간 시너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자산관리(WM) 고객을 위한 전문 상담 및 프라이빗 공간과 기업금융 업무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개인과 기업 고객의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응한다.

종로WM센터와 여의도WM센터에는 SC제일은행 소속 투자전략가들이 상주하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글로벌 시장을 아우르는 투자 인사이트와 포트폴리오를 제안할 예정이다. /안승진 기자 asj1231@

KB국민은행-HUG

전세사기 제로 챌린지

KB국민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함께 청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수기 공모전 '전세사기 제로(ZERO)챌린지'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다. 청년들의 실제 경험과 아이디어를 발굴해 전세사기 예방 콘텐츠와 교육자료로 활용하고자 마련됐다.

참가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전세사기 피해 경험이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피해 사례 ▲피해 지원제도 이용 사례 ▲위기 극복 사례 ▲예방법 ▲제도 개선 방안이다. 이 중 한가지 이상을 선택해 오는 12월 31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은 내년 1월 27일 발표할 예정이며, 대상 1편(300만원)을 포함해 총 10편에 상금 1200만원을 수여한다. /안상미 기자